

제6회 이사회 의사록

2007. 6. 19(화) 09:30

한 국 관 광 공 사

2007년도 제 6회 이사회 의사록

1. 일 시 : 2007. 6. 19(화) 09:30

2. 장 소 : 16층 회의실

3. 안 건

(심의안건)

◎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) : 원안 의결

4. 재적 이사 : 8명

5. 출석 이사 : 8명

6. 참 석 자

감 사 강 영 추	이 사 김 지 상
이 사 강 광 호	이 사 신 진 기
이 사 최 갑 열	이 사 도 영 심
이 사 홍 주 민	이 사 정 의 선
	이 사 김 향 숙

7. 의 사 록 : 붙임

의 장 : 지금부터 공공기관운영법 제19조에 의거
2007년도 제6회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
(의사봉 타봉)

의 장 : 먼저 지난 제5회 이사회 안건인 정관 개정(안) 심의 결과에
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진행 하도록
하겠습니다.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기획조정실장 보고하다)

의 장 : 방금 마친 제5회 이사회 결과보고에 대해 이견이
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의 장 : (각 이사들 이견 없음을 확인)

의 장 : 이견이 없으시면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 안건은 심의안건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
운영(안) 1건입니다. 인재개발팀장이 제안 설명
드리겠습니다.

(인재개발팀장 제안설명하다)

의 장 : 안건심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.
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, 이번 공사사장
모집에 응모코자 하는 분이 계신다면 본 이사회의 심의·
의결에 참여하실 수 없으며, 공사의 임직원 및 공무원은
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그러면 곧바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의 안건은 “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)”에 관한
심의와, 임원추천위원 선정 두 파트로 구성됩니다. 회의
진행은 우선 “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)”에 대한
심의를 마치고, 임원추천위원을 선정하는 순서로 하겠습
니다. 방금 제안설명 드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
(안)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김지상 이사 : 구성 원칙에 보면 비상임이사가 반 이상이 되
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, 4명이내로 할 수 있다고
하는 것은 2명이나 3명도 가능하다는 의미 아니겠습
니까? 만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이후 돌발적인
사유로 비상임이사가 5인 전원의 참석이 불가능할
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위원을
3인만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
입니다.

정의선 이사 : 공사 임직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한
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?

인재개발팀장 : 말 그대로 공사 전체 직원의 의견을 대변할
수 있는 사람 한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
한다는 것입니다. 지금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.

신진기 이사 : 김지상 이사님 말씀처럼 불가피하게 참석하실
수 없는 비상임이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인을
선출하는 것도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

정의선 이사 :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.

의 장 : 의결을 하실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됩니다.

도영심 이사 : 지난번 사장 추천위원회 때는 몇 분을 모셨죠?
아홉 분이었습니까? 이사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세
분으로 정해도 되지 않을까요?

김향숙 이사 :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원의 수는 홀수로 하는
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비상임이사가 과반수
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보장내용이지만
전체위원의 수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
하지 않을까요?

도영심 이사 :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도 투표를 합니까?

의 장 : 가부동수인 경우 캐스팅보트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.

도영심 이사 : 처음부터 투표를 하시지 않나요? 지난번에도
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김향숙 이사님이 말씀
하신 내용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

정의선 이사 : 만약 8사람의 위원이 4대 4가 되었을 경우,
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한다는 말입니까?

의 장 : 예, 그렇습니다.

김향숙 이사 : 위원장이 처음에 투표를 하고 가부 동수일
경우 다시 캐스팅보트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이
가능합니까?

인재개발팀장 : 규정상으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가능하도록
되어 있습니다.

신진기 이사 : 김향숙 이사님의 의견도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
입니다만, 불가피한 상황도 고려하여 세 분으로
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결정을 하시죠.

정의선 이사 : 세 분으로 하시죠.

김향숙 이사 :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이시라면, 그렇게 하시죠.
단,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
말씀드린 것입니다.

의 장 : 그러면, 비상임이사 이외의 외부위원 수는 세 분으로
하고 그중에서 한분은 노사가 합의하여 추천한 두 분
중 한 분을 선임하고 나머지 두 분은 추천을 통해
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
김지상 이사 : 2페이지에 보면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
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? 그 부서장이
사무국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?
그렇다면 인재개발팀장님이 사무국장이 되어야
하겠습니다.

인재개발팀장 : 예, 그렇습니다.

김지상 이사 : 향후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후보자와 경영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, 예전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체결하였는데 이제는 장관하고 체결하게 되어 있죠? 그 경영계약안은 이사회 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?

인재개발팀장 : 예, 그렇습니다.

김지상 이사 : 그러면 전임사장과 이미 체결되어 있는 계약을 승계하는 것입니까?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까?

의 장 : 별도로 안을 상정하여 이사회 의 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안건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.

김지상 이사 : 알겠습니다.

의 장 :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, 다음은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회가 선정해야 할 외부위원이 세 분이고 그 중에 한분은 전체직원의 의견을 대표 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에 의해 추천된 분 중 한 분이 되겠습니다. 이사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재 풀 그리고 공사 자체 인재 풀에서 총 38명의 명단을 이사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. 그 중에서 추천을 하셔도 되고 리스트에 없는 분을 추천하셔도 됩니다.

도영심 이사 : 비상임이사만 투표합니까?

의 장 : 상임이사도 참여합니다.

도영심 이사 :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인사들에 대해서 일일이 논쟁하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각 이사님들이 용지에 두 분씩 적어서 익명으로 추천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.

신진기 이사 :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김지상 이사 : 이 명단은 단지 참고자료로 가져오신 것 아니가요? 반드시 이 안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?

의 장 : 네, 이것은 단지 참고자료입니다. 이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적합한 분이 있으시면 명단에 없는 제3의 후보를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.

김지상 이사 : 그렇다면 도영심 이사님이 제안하신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, 제 3의 후보를 적다보면, 너무 산발적인 추천을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추천하여 다시 그 중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?

도영심 이사 : 그렇지만, 이 리스트에 있는 38명 중에 세 분을 뽑기 위해 한 분 한 분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은 이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

김지상 이사 :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.

의 장 : 인재개발팀장님, 이 추천 양식에 이사님들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, 그러면 무기명투표가 안 됩니다. 이걸 서명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

김지상 이사 : 이것은 서명할 필요는 없고 숫자만 맞으면 됩니다.

도영심 이사 : 무기명투표가 되어야 합니다.

김향숙 이사 : 서명까지 하는 양식은 최종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? 지금은 이 양식 대신 다른 용지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의 장 : 그럼 편의상 별도 용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

(각 이사들 표결하다)

(임원추천위원회사무국, 용지 수거 후 집계하다)

(집계 결과 발표하다)

의 장 : 추천된 인사 중 0 0 0씨와 0 0 0씨는 각각 최다 득표를 하여 추천이 확정되었고, 0 0 0씨, 0 0 0씨는 동일하게 득표하여 다시 한번 두 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.

(이사들 재 표결하다)

(임원추천위원회사무국, 용지 수거 후 집계하다)

(집계 결과 발표하다)

의 장 : 재 표결 결과 0 0 0씨가 임원추천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사님들이 투표해 주신대로 0 0 0씨, 0 0 0씨, 0 0 0씨 세 분을 임원추천위원으로 확정하겠습니다.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?

(각 이사들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, 무기명투표의 보장을 위하여 투표용지는 폐기하다)

신진기 이사 :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?

의 장 : 위원장선임, 신임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방법, 자격요건, 선임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합니다.

신진기 이사 : 알겠습니다.

의 장 : (각 이사들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하다)

의 장 :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)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, 임원추천위원회

위원으로 0 0 0씨, 0 0 0씨, 0 0 0씨 세 분이 추천
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혹시 해당 인사 중에 위원직
을 고사 하는 분이 계시면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
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.

(의사봉 타봉)

의 장 : 그러면 이상으로 안건 심의 및 임원추천위원 선출을
마치겠습니다. 바쁘신 중에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
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6회
이사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(의사봉 타봉)

공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 10조 제 2항에 의거 출석한 이사와
감사가 기명 날인하다.

2007. 6. 19.

이 사 강 광 호

이 사 김 지 상

감 사 강 영 추

이 사 신 진 기

이 사 최 갑 열

이 사 도 영 심

이 사 홍 주 민

이 사 정 의 선

이 사 김 향 숙